

《백두산 8경》 (5)

삼천리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강산을 한지맥으로 그려안고 조국의 북변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 조종의 산 백두산의 장군봉에 오르면 높고낮은 산밭들과 끝간데없이 연연히 뻗어간 밀림의 바다를 지나 저 멀리 남해에 이르러 기까지 삼천리조국땅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듯 하다. 하늘을 치받으며 우뚝 솟은 장군봉은 해발높이가 2750m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장군봉은 지난날 백두봉, 대장봉이라고 불리워왔다. 그러던것을 백두산과 더불어 온 누리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겨레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장군봉이라고 부

르게 되었다. 장군봉의 제일 높은 곳은 천지쪽으로 약 45m 돌출되어있다. 돌출된 곳의 앞부분은 폭이 약 5m를 이루는 절벽으로 되어있다. 남쪽비탈면은 40°, 남동쪽비탈면은 30~35°로 급하며 서쪽은 높이가 100~150m의 벼랑으로 되어있다. 장군봉 정점에는 《장군봉》이라고 새긴 화강석표식비를 세웠다. 북동쪽경사면중턱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백두산사적비가 정중히 건립되어있으며 그 가까이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자리가 있다. 조선의 최고봉인 장군봉 마루에서 사방을 둘러보

면 항일의 총성이 메아리치던 전구들과 천지를 병풍처럼 둘러싼 백두의 천만산악, 가없이 펼쳐진 조국의 산밭들과 골짜기, 아름답고 신비한 구름 등이 한눈에 안겨오는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져있어 끝없는 환희를 자아낸다. 주체52(1963)년 8월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올라오셨다. 장군봉에도 올라가보지 않으면 열척 먹어야 할 약을 아홉척만 먹고 마지막 한침을 마저 먹지 않은것이나 같다고 교시하시었다. 주체103(2014)년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장군봉에 올라 조국강산을 바라보니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력사의 광풍을 부시며 조선혁명을 빛나

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안겨와 뚫어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삼천리조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 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태양 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8경》의 하나로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사회과학원 주제문학 연구소 연구사 한 인영

옷의 색깔과 무늬는 옷차림의 민족적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색이 진한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선명한 것을 좋아하였다. 이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색채에 대한 민족적인 미감이다. 우리 선조들은 주로 흰색과 옥색, 연분홍색이나 미색과 같이 색이 연하면서도 밝고 부드러운것을 옷색갈로 리용하였다. 또한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중간색도 많이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몇가지 안되는 물감으로 여러가지 중간색을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대체로 붉은색계통의 색깔, 보라색계통의 색깔, 누런색계통의 색깔, 풀색계통의 색깔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러한 색깔들은 우리 인민

의 옷생활에 다양하게 리용되었다. 녀성들은 계절적특성에 맞게 따뜻한 봄날에는 은근하면서 밝은 색깔인 연분홍색, 연록색, 미색계통의 옷을 많이 입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색깔인 옥색과 연한푸른색계통의 옷을 즐겨입었다. 어린이들 역시 밝으면

력사적시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는데 세나라시기에는 기하학적무늬와 자연의 일정한 대상을 형상한 무늬가 많았다. 고려시기에는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꽃, 나무잎 등의 식물무늬, 룡, 까치 등의 동물무늬, 해, 달과 같은 무늬들도 적지 않았

조선옷에 리용된 무늬들은 옷감의 재료와 옷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천에 무늬를 직접 짜넣는 직조방법과 판박이, 수놓이, 그림그리기 등의 무늬형상방법은 주로 비단류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배, 모시와 같이 성글게 짠 옷감에는 무늬를 놓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였다. 때문에 옷무늬는 주로 비단옷에 많고 그밖의 옷감으로 지은 옷에는 무늬가 적거나 거의 없었다. 그런가하면 항라와 같은 천들에서는 따로 무늬를 형성하지 않고 다듬어 질에 의하여 생기는 아롱아롱한 자연무늬들로 자연미를 내는것을 더 고상하고 보기 좋은것으로 여겼다. 옷무늬는 남자옷보다 녀자옷에 더 많이 장식되었다. 본사기자

옷색갈과 무늬로 보는 우리의 민족옷차림

서도 연한색계통의 옷을 입었는데 특이하게 저고리의 소매, 깃, 고름 등을 다른 색깔로 만들거나 소매에 무지개색으로 장식된 색동저고리를 명절날 들에 즐겨입었다. 조선옷은 색깔과 함께 무늬에서도 자기의 민족적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옷의 무늬는 오랜

무늬의 주제내용이 이전 시기보다 풍부해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국화, 모란 등 여러가지 꽃무늬들과 포도넝쿨무늬, 나무잎무늬와 같은 식물무늬, 물고기, 학 등의 동물무늬가 많았다. 그밖에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글자무늬들이 새롭게 리용되어 무늬의 주제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본사기자

《무예도보통지》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최근 조선의 《무예도보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발굴된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무술동작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한 군사관계의 도서이다. 지난 10월 30일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총국장은 우리 나라 《무예도보통지》의 《세계기록유산계획 국제등록부》 등록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련도의 발상지인 우리 나라 민족무

술의 력사와 우수성을 보여주는 이 도서가 조선의 첫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었다. 지난해 도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원료자재를 리용한 새 치료방법 확립의 리론적기초를 다지고 립상실천에 도입하였다. 녀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임신면역학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조국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의학부문에서 새로운 학문 성립

공화국의 의학부문에서 새로운 학문이 정립되었다. 녀성들속에서 임신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난치성 산부인과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립한 임신면역학이다. 학문에서는 습관성류산에 대한 원인에 따르는 새 치료방법의 기준을

확정하고 태출피해학구의 물리화학적성질과 상태, 생물학적안전성 등을 밝혔다. 치료후 임신유지효과와 그 예측지표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승국은 새로운 의학리론이 확립된데 대하

를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무우는 매운맛을 내는 데다 염증을 없애는 작용도 하기때문에 가을과 겨울철감기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코감기에 걸렸을 때 무우즙을 내어 가래나 숨에 묻혀 코 구멍에 넣고 있으면 증상이 현저히 완화된다. 목구멍이 아플 때 꿀에 잘게 썬 무우를 재워 먹어도 좋다. 본사기자

가을과 겨울철건강에 좋은 무우

가을과 겨울철에 무우를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며 일부 질병도 치료할수 있다. 무우를 삶아 먹으면 위를 보호할수 있다. 무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몸안에 쌓인 로페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국을 끓이는 등 무우를 삶아 먹으면 소화기 잘되고 몸이 더워진다. 무우를 먹으면 감기

를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무우는 매운맛을 내는 데다 염증을 없애는 작용도 하기때문에 가을과 겨울철감기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코감기에 걸렸을 때 무우즙을 내어 가래나 숨에 묻혀 코 구멍에 넣고 있으면 증상이 현저히 완화된다. 목구멍이 아플 때 꿀에 잘게 썬 무우를 재워 먹어도 좋다. 본사기자

—무우시래기를 끓여낸 물을 마시면 미용효과를 볼수 있다. 무우시래기를 끓여낸 물을 차대용으로 자주 마시면 미용효과를 볼수 있는데 그것은 무우잎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때문이다. 비타민C는 항산화물질로서 멜라닌이 합성되는것을 억제하고 지방이 산화되는것을 방지한다. 본사기자



리인로가 다가가 리규보의 손을 부여잡으며 울먹이었다. 《왔구만, 왔어. 아, 오형이 여길 찾아온 그대 봤더라면...》 《쌍명재선생님!》 《오형이 일찌기 우리 나라에 시재가 뛰어난 분이 났다고 그렇게 좋아

했었지.》 리인로에게 이끌려 정각에 들어갔을 리규보는 싱글뚱글 웃는 리담지며 립춘, 함순, 황보항, 조통이들을 차마 면바로 바라볼수가 없

었다. 리인로의 말대로 좀 더 일찌기 여길 찾아왔더라면 오세재가 병을 핑계로 동경에 내려가지도 않았을런지 어이 알랴! 사실 오세재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아파 벼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머나먼 동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3)

글 전 철 호, 그림 박 봉 혁

그러나 6명의 벼들과 사귀게 되자 아낌없이 벼슬을 내놓고 피사팔로 들어갔던것이다. 《좌—》하는 골바랍소리에 눈길을 드니 령마루였다. 오솔길 좌우로 아름답드리소나무며 참나무들이 울창하여 범이 새끼쳐도 모를것 같았다. 앞으로는 퍼그나 널직한 시냇물이 굽이쳐흐르는것이 보이는데 그 건너편 산기슭에 평장히 큰 불당이 솟아있었다. (그런즉 예가 피사팔이 분명하겠다.) 《저기 선 길손은 백운거사가 아니시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홑뚱 떨며 리규보는 음침한 산속에서 자기의 호를 불러주는 사람이 어데 있나 사방을 살

이 지 않았다. (이거 귀신의 조화인가?!...) 《홍구만, 백운거사!》 《?...》 암만 둘러보아야 소리친 사람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나야, 나. 조통일세.》 하는 소리와 함께 난가리같은 나무단이 움설움설 다가오더니 똑 멎어서며 그뒤에서 한사람이 뛰쳐나왔다. 정말로 조통이었다. 키가 큰데다 힘 또한 장사같은 조통이 저보다도 엄청나게 큰 나무단을 안고있었으니 어찌 사람을 가려볼수 있었으랴. 《영락(조통의 자)선생! 그새 무고하시었소?》 리규보는 《해좌7현》의 막내이나 자기보다 다섯살 우인 조통의 거울진

손을 잡고 기뻐 소리쳤다. 《면바로 찾아왔구만!》 《뭐 면바로? 그럼 우릴 찾아왔다는건가? 히야, 이거 오늘은 해가 동쪽으로 질게 아니야?》 조통은 나무단은 아랑곳도 않고 리규보의 손을 잡아 정각쪽으로 이끌면서 벽작 고아였다. 《쌍명재(리인로의 호)선생! 로형들! 누가 찾아왔나 보시우. 기동(리규보의 아이적 별호)이 찾아왔소. 저 하늘의 구성이 국자감시에서 장원급제를 할거라고 점지해준 그 기동이 찾아왔단 말이 우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정각으로 모여들었다. 리규보는 그들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정정하신 선생님들을 뵈게 되어 기쁘오이다.》



경으로 굳이 피해간것이였다. 《자 자, 백운거사가 우리 피사팔을 찾아온것을 뜻해서 술을 들자구요.》 언제 정각을 나섰겠는 지 익살좋은 리담지가 술

방구리와 안주가 든 청자합을 안고 정각으로 들어서며 떠들었다. 그제야 리규보는 눈길을 들어 정각안을 바로 볼수 있었다. 백학이 나래를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날씬하게 지은 함각지붕을 떠인 정각안은 해종일 뜨는 해, 지는해를 다 받을수 있는 묘한 자리에 들어앉았다. 그안에 등근 상을 빙돌아가면서 이들 일곱사람이 둘러앉을수 있도록 7개의 평상(의자)이 놓여있었다. 창자보시기에 술을 철철 따르며 리담지가 룡조로 말을 절었다. 《이보게 백운거사, 자네 덕전(오세재의 자)의 자리에 보결로 들어오지 않겠나?》 리규보도 흥그러운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룡조로 대꾸했다. 《철현이 그 무슨 벼슬자리라고 보결하고말고가 있겠소이까? 옛적에도 철현들이 있었지만 후임을 보결했다는 그런 소리는

들지 못하였소이다.》 이어서 리규보가 정색해서 말하였다. 《소인은 《해좌7현》들을 끝없이 공경하오이다. 또 나로서는 나에게 시짓는 묘리를 가르쳐준 오선생님의 자리를 메울만큼 재능이 없는데야 감히 어찌 그런 생각을 하리까. 오선생님은 오늘도 래일도 저의 스승이옵니다. 이건 저의 진심이니 두번다시 그런 말씀을 말아주소이다.》 리인로가 눈을 슴벅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파시 백운거사일세. 덕전이 후진을 잘 두었거던.》 리규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며 정중히 아뢰었다. 《선생님들! 전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벼슬길을 등지고 청백하고 빈곤하게 살면서 많은 글을 쓰신 오선생님에게 어질고 깨끗하신분이라는 뜻에서 현정이란 시호를 드렸으면 하오이다. 오선생님을 현정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